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피코크 레볼루션(Peacock Revolution)의 특성과 의미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Peacock Revolution in the
Fashion of Men's

주저자

정 인 의 Jung, In-ui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석박사통합과정 | Lecture of Hankook University
dlsdml0518@naver.com

공동저자

윤 지 영 Youn, Ji-young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초빙교수 | Visiting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1201youn@hanmail.net

교신저자

김 현 주 Kim, Hyun-joo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Hyunjookim@dankook.ac.kr

투고일	2019.03.10	심사일	2019.04.24	게재확정일	2019.04.27
-----	------------	-----	------------	-------	------------

목 차

1. 서론
 2. 피코크 레볼루션의 이론적 배경
 - 2.1. 피코크 레볼루션의 정의
 - 2.2. 피코크 레볼루션의 배경
 3. 남성복에 나타난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 3.1.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남성복
 - 3.2. 최근 5년 간 (2014-2018) 피코크 레볼루션 남성복
 4.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특성과 의미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Keyword

피코크 레볼루션, 1960년대, 남성복,
패션디자인
Peacock-revolution, 1960's, Men's wear
Fashion Design

Abstract

For last several years, the modern men's fashion has remarkably shown the fitted silhouette for humans' body line, fancy colors of high-chroma and complementary color contrast, and prints, patterned image and detailed decoration showing individual tastes. Before this, in the 1960s when such diverse expression methods for men's clothing were fully begun, young people's consciousness was largely changed socioculturally, which was led to the expression of individual fashion design. In the center of the fashion, the Peacock Revolution had influences on men's role in self-expression. Also, the Peacock Revolution w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showing the diversity of pop culture and individuality through youth culture, by getting out of the firm stereotypes of the time on the concept of men and women. Thu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each-changed sociocultural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men's clothing in the 1960s and for last five years through the Peacock Revolution, and also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it. The significance of it is to review the concept and new meanings of men's clothing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chang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en's clothing of the time. Starting from research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ceptual definition of Peacock Revolution of the 1960s, this study classified the men's clothing in the 1960s and for last five years into four design elements for analysis. In the results of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eacock Revolution design of two eras, the design was changed and recomposed through the repetition of extinction and formation within a generation or throughout generations in accordance with sociocultural backgrounds. Also, owing to the influence of the 4th industry, the fashion industry was able to more increase the expectation of individually-customized design production possibility for male consumers aiming for their individuality. Based on the case analysis, total four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such as individuality, androgyny, expandability, and mixture were drawn.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continuous research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differences in the aspects of form and concept of men's clothing, which could become an index of creative expression of design.

최근 몇 년간 현대 남성 패션은 인체 라인을 따른 핏된 실루엣과 고채도, 보색대비와 화려한 컬러감, 개인적 취향이 돋보이는 프린트, 패턴 이미지와 디테일 장식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남성복의 다양한 표현방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는 사회·문화적으로 청년들의 의식 변화가 크고 그로 인한 표현을 개성적인 패션디자인으로 표출한 시대였다. 그 패션의 중심에 피코크 레볼루션(Peacock Revolution) 현상이 남성들의 새로운 자기표현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피코크 레볼루션은 남성과 여성의 개념에 대해 확고했던 당시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청년문화를 통한 개성과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었던 사회·문화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 변화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토대로 1960년대 남성복과 최근 5년간의 남성복을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고 그 특성과 의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남성복의 시대적 문화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역사 변화에 따른 남성복의 개념과 새로운 의미를 짚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의 개념 정의와 이론적 배경의 탐구를 시작으로 하여, 1960년대 남성복과 최근 5년간의 남성복을 4가지 디자인 요소로 분류, 분석하였다. 두 시대의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디자인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한 시대, 또는 세대를 거쳐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여 변화되고 재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의 영향으로 패션산업은 개성을 중시하고 개별성을 지향하는 남성 소비자를 위해 개인 맞춤형 디자인 생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이와같은 사례분석을 토대로 개별성, 양성성, 확장성, 혼재성의 네 가지 미적 특성과 의미가 도출되었다. 앞으로 남성복에 대한 형식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의 차이에 관한 의미와 특성 연구가 계속 지속되어 디자인의 창조적 표현에 지표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의 현대 남성복은 바디라인이 돋보이는 실루엣, 고채도의 선명한 색채, 확장된 이미지의 패턴과 프린트, 레이스와 러프 등의 개인적 취향이 뚜렷하고, 디테일 장식이 많이 적용되어

여성복 못지않은 다양한 형태와 화려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과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 또한 인체 곡선에 꼭 맞고 네크 장식인 러프와 슬래쉬 등의 과장된 장식적 특성이 남성복에 적용되었지만, 당시 이러한 의상은 권력을 나타내는 일부 계층만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 그 후 19세기 후반부터 남성복은 여성복과 확연히 구분되어 사회적 역할에 의해 통용된 전형적인 남성 스타일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1960년대 이후 패션계에 나타난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을 통해 당시의 남성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획일화 된 박스스타일의 수트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표현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카엘은(Michael Fish)¹⁾ “남성도 ‘보여지기’ 위함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남성들의 패션이 정형화된 형태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여성적인 취향이 나타났던 1960년대는 사회·문화적으로 청년들의 의식 변화가 컸고, 표현방법을 패션으로 분출한 시대였다. 그 패션의 중심에 피코크 레볼루션이라는 현상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남성들의 새로운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에 민감했던 1960년대 남성패션의 특징과 디자인에 있어 유사함이 나타나는 최근 5년간의 남성패션의 특징을 분석하여 각각의 시대상의 개념과 의미를 짚어보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토대로 1960년대 남성복과 현대 남성복의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고 그 특성과 의미 파악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아래의 <표 1>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난 10여년 간 남성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다.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시대는 주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였으며, 주제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별 대표적인 미적 특성 분석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전의 획일화된 남성복에서 벗어나 남성의 ‘개성’과 ‘다양성’이 대두되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난 “피코크 레볼루션”과 같은 특정 현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현대 남성 패션에서 나타나는 외적 조형

1) 연구자주 : 부티크 Mr. Fish -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에 영향을 끼친 1960년대 패션 레이블(부티크)의 소유자

2) <https://www.bustle.com/> 검색일 : 2018년 6월 15일

표현의 다양함을 디자인 요소로 세분화하고, 각기 다른 시대별 의미에 대해 파악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한 다양한 관점의 남성복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1> 시대별 남성복 특징 및 사회 문화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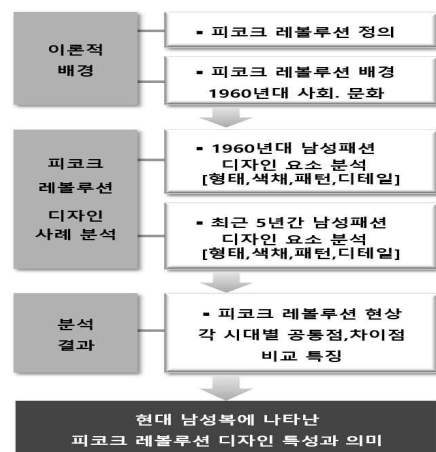
저자	연도	주 제	키워드
정현숙	2017	로코코 시대 남성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로코코 남성복
정현숙, 박길순	2015	르네상스 시대 남성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르네상스 남성복
신주영	2008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 -르네상스-바로크 시대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바로크 / 복식
정화연	2007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남성복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사 / 장식
이민정, 이인성	-	현대 패션에 나타난 살롱 문화 시대의 패션스타일에 대한 분석 -17,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패션스타일 17세기 / 18세기 프랑스
장성은	2007	빌플린의 양식학적 관점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의 양식 비교	빌플린 르네상스 / 바로크
조경숙	2016	프랑스 패션 파워 형성의 배경이 된 사회·문화적 요인	프랑스패션/ 사회·문화 요인
문지영	2009	1920년대 프랑스 '남장여자 (Garconnes)'의 이미지와 표상	20세기 남장여자 / 프랑스패션
-	-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20세기 남성패션 / 상징
한순영, 김경희	-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에 관한 디자인연구	현대패션 남성복 / 양성성 앤드로지너스
허예은, 하지수	2018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젠더 / 한국패션 한국 젠더가치관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 관련 학술지, 논문, 문헌, 연속 간행물,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1960년대 남성 패션의 개성과 다양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원인이 되었던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에 대한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순서로는 첫째, 피코크 레볼루션의 정의 및 개념정리를 시작으로 196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 또한,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이 1960년대 패션계에 미친 영향 및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패션스타일을 분석한다. 둘째,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의 영향을 받은 1960년대 패션 사례를 디자인의 구성 요소인 형태, 색채, 패턴, 디테일 및 장식 등 총 4가지로 나누어 분류 및 분석하였다. 셋째,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요소와 유사한 2014년 S/S부터 2018년 S/S까지 최근 5년간의 남

성복 컬렉션 중, 총 6개의 남성 브랜드(Gucci, Balenciaga, Dolce & Gabbana, Saint Laurent, Kenzo, Burberry Prosum)를 선별하였다. 6개 브랜드의 선별기준은 형태와 색채, 프린트, 장식 등의 4가지 디자인 요소가 1960년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요소와 유사한 경우의 사례를 5차례에 걸쳐 총 100여 벌의 대표디자인 사례로 선별하였다. 선별한 사례는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사례 분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밀도 있게 재분석하였다. 컬렉션 이미지의 수집 출처는 전문 패션 정보 사이트 보그(Vogue.com)에서 연도별 자료를 수집하고 시즌별로 저장하였다. 분류된 사례는 디자인 요소에 기준을 두고 형태의 실루엣 분위기, 색채에서 나타나는 색상, 명도, 채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나갔다. 또한, 패턴과 프린트의 다양한 이미지 분류와 디테일적인 장식을 통한 디자인 재발견 등의 의미 분석을 통한 재해석도 함께 이끌어 나갔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각각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토대로 1960년대 남성복과 현대 남성복의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과 의미 파악을 통해 현대 남성패션의 이해도를 넓히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1>은 위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는 연구 흐름도이다.



<그림 1> 연구흐름도

2. 피코크 레볼루션의 이론적 배경

2.1. 피코크 레볼루션의 정의

피코크 레볼루션은 1960년대 후기 남성 패션계에 큰 영향을 준 사고방식이다. 1967년 미국의 뒤퐁

사 고문이었던 디히터 박사에 의해서 제창되었던 것으로, 남성복에도 개성을 도입하려는 사고방식과 시도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화려한 슛공작(Peacock) <그림 2>에 비유하였다. 이 영향으로 신사복 업계에서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와이셔츠와 넥타이의 색이 다양해졌으며, 프린트된 셔츠나 무늬가 프린트된 바지로 대표되는 유니섹스 감각의 패션이 남성에게도 적용되었다.³⁾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1960년대 중반의 남성들은 이전 시기에 유행해 왔던 컨티넨탈 수트를 더 이상 입지 않고, 대신 모즈(Mods)의 수트를 입기 시작하였다. 모즈의 자켓은 얇은 어깨 패드를 쓰고, 라펠 카라는 넓어졌으며, 밑단 쪽으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몸판과, 옆트임이나 뒷트임을 주어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영국식의 자켓이다. <그림 3> 이 시기에는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인체가 드러나는 실루엣과 화려한 색채, 대담한 패턴의 원단을 썼고, 러플 장식의 디테일이 있는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셔츠 또한 1960년대부터 바디라인을 드러내는 셔츠가 유행하였다. 넥타이는 넓어졌으며 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컬러와 패턴 등의 무늬가 더욱 중요해졌다. 남성들의 외투는 <그림 5>과 같이 카라에 모피를 대어 입거나, 가죽으로 제작된 코트가 유행했다. 코트의 길이는 1960년대 후반부에는 여성 스커트처럼 길이가 짧아졌지만 1970년대 초반이 되자 코트의 길이가 다양해졌다.⁴⁾ 이와 같이 패션에 있어 나타난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은 당시 변화요인이 많은 1960년대의 청년문화와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수단이었고, 유행을 선도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이러한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의 이해도를 넓히고자 1960년대 배경의 사회·문화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피코크 레볼루션 (1967)



<그림 3>
넓은카라,싱글-브레스티드



<그림 4>
다양한 패턴과 색채의 넥타이



<그림 5>
1960년대 남성들의 외투

3) 피코크 혁명 [peacock revolution]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8. 25., 한국사전연구사)

4) 피코크 혁명 [peacock revolution]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8. 25., 한국사전연구사)

2.2. 피코크 레볼루션의 배경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가 청소년층으로 성장하여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청년 문화가 형성되어 사회 전체 분위기를 주도한 시기였다. 또한 다수의 청소년층이 소비의 주체로 등장하여 패션 리더로 부상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해져 약자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되면서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배려와 차별의 이데올로기가 공존했던 논쟁의 시기였다.⁵⁾ 1960년대는 세계가 새로운 창조력의 대두 및 역동적 발전의 시대로, 복식사에서는 영 패션의 시대였다. 아티스트들의 부상은 관중들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들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그들의 표현 방법의 하나인 패션의 다양화를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60년대 중반 이후 잡지, TV, 영화 등의 매체가 대중문화를 급속히 발달시켰고, 소위 3C 시대(Color TV, Car, Cooler)가 도래하게 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 미국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위대한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렸다.⁶⁾ 이와 같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는 팝송과 팝 아트 등의 대중예술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대중문화와 함께 기술 산업의 발달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소비문화, 여가 활동과 오락이 확산되었다. 청소년들이 강력한 소비계층으로 성장하여 패션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패션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젊은이가 주도하는 대중예술과 거리문화가 패션에 반영되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디자이너들도 오트쿠튀르 외에 프레타 포르테 디자인 의상을 판매하는 패션 부티크와 기성복 라인을 활성화했다. 이 시기의 예술 또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팝 아트, 키네틱 아트, 옵아트 등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타났다. 옵아트의 무늬와 팝 아트의 선명한 색채와 구성은 이 당시 패션에 많은 영감을 제공하였다.⁷⁾ 이와 같은 사회적 발전에 따른 청

5) 1960년대 패션 - 대중문화와 미니스커트, 1958~1969 (20세기 패션 히스토리)

6)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389

7) 1960년대 패션 - 대중문화와 미니스커트, 1958~1969 (20세기 패션 히스토리)

년문화와 예술적 영감 등은 남성패션에 있어 혁명을 일으키며 피코크 레볼루션이라는 현상으로 재창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피코크 레볼루션이 일어난 1960년 패션스타일을 살펴보면, 사회진출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테일러드 수트를 많이 입기 시작하였는데, 캐주얼뿐만 아니라 정장에서도 남녀 간에 거의 동일한 모양의 패션이 유행하였다. 1960년대의 부티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룩을 정의하는 분위기였다. 패션의 규칙, 소매시장, 태도 등 모든 것이 셀러브리티의 영향을 받았다. 남자 배우와 팝스타들이 ‘보그’의 패션 페이지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1966년 이브 생 로랑은 여성의 신체에 어울리는 팬츠 슈트를 디자인하여 리브 고쉬 프레타포르테를 런칭했다.⁸⁾ 이로 인해 1967년 경에는 모든 패션 컬렉션에서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unisex)의상이 선보였으며, 남녀 대학생 사이에 동일한 스타일의 캠퍼스 룩(campus look)이 유행하였다. <그림 6, 7> 이 시기는 대중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팝송 트위스트(Twist)가 성행하였는데, 청년들은 팝스타들의 외모와 패션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팝 음악의 가장 유명한 그룹은 비틀즈와 롤링 스톤스였다. 비틀즈는 모즈 룩을 선보였으며, 모즈 룩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림 8> 롤링 스톤스의 공연 의상은 청년들의 히피룩에 영향을 미쳤다. 몸에 딱 떨어지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모즈룩은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변화하였다. 이는 꽃과 같은 자연의 무늬를 담은 셔츠 등 ‘네추럴함’을 추구하는 ‘히피’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길어지고 있던 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대한 회의를 느낀 많은 젊은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바라던 생각에서 비롯된 스타일이다.⁹⁾ 다양성을 포용하는 반체제 패션은 친구, 동서, 색상과 재질 등을 모두 버무려 변화무쌍한 반체제 파를 만들어냈다.¹⁰⁾ 평화를 원했던 히피 집단의 청년들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외모나

자신들의 옷을 통해 표현하였다. <그림 9> ‘꽃’은 자유와 반전의 상징으로써 직물의 프린트나 액세서리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손뜨개나 패치워크 등 자연스러운 느낌의 아이템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와 비슷했던 스타일로는 집시룩, 보헤미안룩, 페전트룩, 에스닉룩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무늬를 사용하면서 제한적이지 않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의 물결 속에 다양한 패션 스타일은 대중적인 유행과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하면서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을 형성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표 2>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

	유니섹스룩	캠퍼스룩	모즈룩	히피룩
스타일				
특징	남녀 함께 입다	동일한 스타일	모방 / 유행	하류의 상류화

3. 남성복에 나타난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이번 장에서는 피코크 레볼루션의 디자인 파악을 위해 패션 사례를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형태, 색채, 패턴 및 프린트, 장식과 디테일 등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패션 사례 수집은 패션사 문헌과 온라인 수집을 통해 당시 피코크 레볼루션 스타일의 유행을 주도한 유명 아티스트들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표 사례는 아래 <그림 10>의 모즈 룩을 유행시킨 대중 예술가 비틀즈로, 이 당시의 젊은이들은 모즈룩의 영향을 받아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을 즐겼으며, <그림 11>과 같이 고체도의 다양한 이미지의 컬러풀한 의상들이 유행하였다. 특히 허리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연스러운 어깨선을 통하여 날씬하고 슬림하게 보이는 것을 희망하였다. 수트를 보다 개성 있게 연출하려는 욕구로 인해 신체 윤곽이 잘 표현되는 입체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나타나는 최근 5년간의 남성복 컬렉션의 디자인 사례는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8) N.J Stevenson. The Chronology of Fashion. THE IVY RESS. 2011

9) 김민자 외 5인. 서양패션멀티콘텐츠. 교문사. 2010. pp.439-442

10) N.J Stevenson. The Chronology of Fashion. THE IVY RESS. 2011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6개 디자이너 컬렉션의 총 100여 벌의 디자인을 선별하였다. 이를 1960년대와 동일한 디자인 구성 요소인 형태, 색채, 패턴 및 프린트, 장식과 디테일 등 4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분류,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0> 비틀즈의 모즈룩



<그림 11> Italian band, NOMADI

3.1.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남성복

3.1.1. 형태(실루엣)

피코크 레볼루션 시기의 디자인 특징은 1960년대 이전의 남성복의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남성들도 디자인과 개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박스형의 실루엣을 벗어나 인체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의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그림 12>의 상의 자켓은 어깨선의 여유를 최소화하여 신체에 딱 맞게 구성하였으며, 소매 폭(너비)도 기존의 기능적인 남성복의 소매통보다 좁게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13> 역시 자켓과 소매 모두 여유분을 최소화하여 몸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바지 또한 힙 선부터 무릎, 밑단까지 좁게 떨어지는 슬림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4>과 <그림 15>는 ‘뉴 댄디 실루엣’¹¹⁾으로 낮은 허리, 스트레이트 컷, 세로 줄무늬 바지를 돋보이게 하려고 가능한 스키니하게 제작되었다. 이와 같이 피코크 레볼루션의 디자인 요소 중 형태의 주요 특징은 인체 라인을 따른 실루엣이 주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 요인으로는 좁은 어깨선, 여유를 최소화한 소매통과 바지통, 그리고 허리라인을 강조한 여성적 라인을 남성복에 적용한 실루엣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1960년대 이전 일반적인 남성복의 박스 실루엣과는 현저히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표 3> 1960년 남성복 형태 -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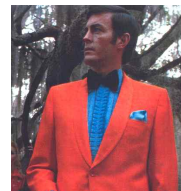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실루엣				
특징	여유를 최소화한 핏 된 어깨, 소매, 바지 형태		뉴 댄디 실루엣 /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실루엣	

3.1.2. 색채

이 시기의 남성복의 색채는 피코크 레볼루션 말 그대로 화려한 공작의 꼬리처럼 다양한 색상을 <그림 17, 18>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과 같이 이전의 남성복의 색채는 한 착장 안에 구현되는 색상수가 많지 않았다. 주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의 명도와 채도가 낮은 컬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와 같은 색상은 당시 점잖은 남성을 대변하는 색채의 특징이었다.



<그림 16>
이전 색채



<그림 17>
1960년대 색채



<그림 18>
1960년대 색채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의 대표 사례인 <그림 19>의 왼쪽 상의는 RP계열이며 하의는 B계열로 모두 채도가 높은 색채이다. 오른쪽 역시 상의 하의 모두 R계열로 채도가 높다. <그림 20>은 대표 컬러 2개를 추출한 결과, R계열과 Y계열 모두 채도와 명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그림 22> 사례 또한 대표 컬러 R계열, Y계열, YR계열, B계열의 색상으로 나타나며 명도와 채도가 모두 높다. 이처럼 피코크 레볼루션 시기의 색채의 특징은 첫째, R계열과 Y계열, B계열의 순색 컬러를 위주로 한 다양한 색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이전 남성복의 주요 컬러로 사용되었던 블랙, 그레이, 네이비 계열의 무채색으로부터 컬러의 선택이 보다 다채롭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디자인에 사용된 컬러의 채도와 명도가 높다. 이는 당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술의 발전을 내포한 미래주의와 맥을

11) 1960년대 패션 - 대중문화와 미니스커트, 1960'S Style 1958~1969 (20세기 패션 히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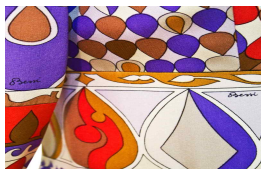
같이 하며, 밝고 활달한 영 패션(Young Fashion)의 당시 청년문화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표 4> 1960년 남성복 색채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색채				
컬러				
특성	R, Y 계열의 순색, 고채도, 고명도, 다양한 컬러			

3.1.3. 패턴(프린트)

피코크 레볼루션 시기의 패턴은 <그림 23, 24>의 프린트와 같이 다양한 문양과 화려한 색채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이전 시기 여성복에 대부분 적용되던 패턴이 남성복에도 상당부분 적용되어 디자인 및 스타일이 다양해졌다. <그림 25>의 왼쪽 남성 셔츠 패턴은 채도가 높은 플라워 패턴과 유기적 곡선의 형태를 지닌 페이지즐리 패턴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오른쪽의 셔츠는 원의 형태를 보여주는 곡선의 패턴과 아르데코의 시대적 느낌을 보여주는 식물 패턴을 사용하였다. <그림 26>은 화려한 색상의 플라워 패턴을 사용한 자켓으로, <그림 24>의 태국 아트 스타일(thai art style)의 패턴과 유사한 느낌을 보여준다.



<그림 23>
1960년대 실크 저지 프린트



<그림 24>
White glass pattern
(Thai art style)

또한, <그림 28>의 ‘사이키델릭’ 패턴은 당대 미래주의 패션의 특징이자 히피 문화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형태로 당대의 사회·문화 풍토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패션의 중심지인 영국의 런던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하이트, 애서버리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전파되었다.¹²⁾ 피코크 레볼루션의 패턴은

12) 1960년대 패션 - 대중문화와 미니스커트, 1958~1969 (20세기 패션 히스토리) 패션전문 사전. 검색일 : 2018년 7월 4일

시대의 영감을 받은 다양한 색채와 히피의 플라워, 페이지즐리, 동양 예술의 영향을 받은 오리엔탈 기하학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프린트, 패턴 또한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을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1960년 남성복 패턴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패턴				
특성	플라워 / 페이지즐리 패턴	타이 패턴 / 플라워	오리엔탈 플라워 패턴	사이키델릭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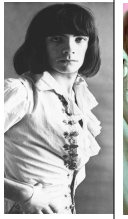
3.1.4. 디테일 및 장식

이 시기의 남성들은 당시 유행을 주도했던 아티스트의 공연 의상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의상을 따라 입기도 하였다. 여성복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던 프릴, 개더, 셔링 등의 디테일은 아티스트의 의상뿐 아니라 대중적인 남성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일부 귀족층에만 사용된 수작업의 장식디자인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으로 인해 기성복 산업이 발전하면서 정교한 디테일 장식이 대중화되고 유행되었다. 1960년대 팝 음악의 가장 유명한 그룹은 비틀즈와 롤링 스톤즈였다. <그림 29>는 롤링 스톤즈의 멤버 믹 재거의 공연의상으로, 넥라인의 주름장식과 소매 어깨점 양쪽으로는 개더가 잡혀있으며, 손목에도 셔링을 잡아 여성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비틀즈의 ‘모즈 룩’을 따라 입었듯이 남성들은 롤링 스톤즈의 공연 의상에도 영향을 받아 산업 혁명 시기 이후 남성에게 통용되지 않던 여성적인 프릴과 소매장식으로 치장한 남성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그림 30>은 베스트 앞 중심에 싸개 단추를 달아 잠금장치로 사용하였으며, 소매는 어깨부터 셔링을 주고 밑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블라우스 소매를 차용하여 남성복으로 입고 있다. <그림 31>의 크라바트 스카프는 모즈의 제약에서 벗어나 피코크 혁명을 정착시킨 장식의 구현체이며 이 시기의 남성들은 맞춤 셔츠와 함께 입었다.¹³⁾ <그림 32>는 소매

13) N.J Stevenson. The Chronology of Fashion. THE IVY RESS. 2011

단에 일반적인 셔츠의 커프스 대신 프릴의 양을 많이 주어 화려하고 풍성한 소매 장식의 실루엣을 보여줌으로서 ‘화려함’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여성에게 국한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디테일 디자인은 전 시대의 남성복 스타일 및 일반적인 조형요소인 통일과 조화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개성을 나타내는데 좋은 수단으로 여겨졌다.

<표 6> 1960년 남성복 디테일

	<그림 29>	<그림 30>	<그림 31>	<그림 32>
디테일				
특성	여성적인 장식미	대량생산의 대중화	장식의 재조명	

아래의 <그림 33>은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남성복의 대표적 사례들을 패션 디자인 요소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실루엣은 기능적인 면에서 탈피하여 남성들도 디자인과 관련된 개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여유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바디라인을 드러내는 실루엣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본 신체 구조가 다른 남녀차이의 인식을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다. 둘째, 색채는 1960년대 이전 남성복의 주요 컬러로 사용되었던 블랙, 그레이, 네이비 계열의 무채색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였다. 준보색의 대비와 R계열과 Y계열의 인접색을 통한 풍부한 색감은 1960년대 영 캐주얼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셋째, 패턴 및 패브릭 프린트는 꽃과 같은 ‘내추럴함’을 추구하는 자연의 무늬, 동양 예술의 영감을 받은 오리엔탈 패턴, 그리고 히피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사이키델릭 패턴을 적용한 셔츠와 자켓 등 다양한 패턴 이미지의 형태와 프린트들이 남성복 디자인의 주를 이루었다. 이는 피코크 레볼루션의 본래의 뜻처럼 화려한 공작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일부 귀족층의 의상에 적용되었던 디테일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의 영향으로 기성복 산업이 발전하면서 정교한 장식이 대중화되었고,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을 통한 패션디자인 요소에 따른 특징 분류



<그림 33>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남성복 디자인 요소에 따른 특징 분류

이처럼 피코크 레볼루션의 주요 패션디자인 특징은 1960년대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전 시기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국한되어 통용되어온 남성복에 화려한 변화를 가져온 현상이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이 최근 들어 현대 남성복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와 같은 디자인의 유사한 요소를 기준 삼아 현대 남성복의 디자인 조형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1960년대 남성복과 사회·문화적인 배경, 그로 인한 특성과 의미의 차이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 최근 5년 간 (2014-2018) 피코크 레볼루션 남성복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어진 1960년대의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요소의 특징을 적용하여, 최근 5년간 남성복 컬렉션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분석 사례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남성복 컬렉션에서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총 100여 벌의 디자인이다. 이를 1960년대 분석과 동일한 조건으로 패션디자인 구성 요소인 형태, 색채, 패턴, 디테일의 4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 및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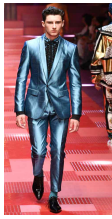
3.2.1. 형태(실루엣)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시대 당시 젊은이들의 스타일은 몸에 딱 맞는 바디라인을 적용한 슬림한 실루엣의 재킷과 깔끔한 디자인의 수트, 깃이 높은 셔츠에 발목에서 짧게 잘리는 바지와 첼시 부츠를 매칭하는 스타일을 즐겨 입었다. 최근 5년간의 현대 남성복은 1960년대와 같이 바디에 슬림하게 붙는 H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소

매가 사라지는 등 형태 구성면에서 색다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첫 번째 사례 <그림 34>와 <그림 35>의 상의는 소매 오금선과 팔굽선 너비를 소매 밑단보다 좁게 구성하여 신체 라인의 곡선적인 느낌을 살렸으며, 허리의 여유분을 최소화하고 몸판 밑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하의는 밑단까지 좁아지는 구성으로 발목까지 슬림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36>은 소매가 없고 어깨 길이를 좁게 구성한 슬리브리스(Sleeveless) 투버튼 롱 자켓이다. 허리의 여유분을 적게 주어 몸판 - 허리 - 밑단으로 이어지는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보여준다. <그림 37>의 상의는 몸에 맞도록 몸판의 여유를 소량만 주어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했으며, 셔츠 카라는 밴드 카라를 높게 구성하였다. 하의 또한 밑단까지 좁게 떨어지는 슬림한 라인으로 디자인하여 경쾌하고 활달한 현대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표 7> 최근 5년간 남성복 형태(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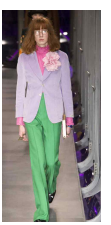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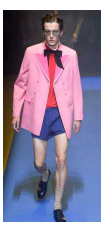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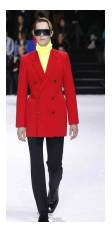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실루엣				
컬렉션	Dolce&Gabbana 18 S/S	Dolce & Gabbana 18 S/S	Saint Laurent 16 F/W	Burberry Prosum 16 S/S
특성	인체의 라인을 따른 실루엣		개인 취향의 강세	

3.2.2. 색채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색채는 개인의 기호, 개성, 심미안, 문화적 배경 등을 표현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¹⁴⁾ 이러한 수단의 결과로 1960년 이전의 남성복의 색채는 사회활동을 통한 기능적이고, 점잖은 이미지의 대표 컬러로 무채색을 선호하였다. 1960년 이후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을 통해 남성의 이미지 컬러가 무채색을 탈피하여, 화려한 보색의 대비가 강하고, 채도와 명도가 높은 다양한 색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현대 남성복 사례인 <그림 38>과 <그림 39>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Gucci 17 F/W 컬렉션의 의상들이다. <그림 38>의 상의는 P계열이며

하의는 GY계열로 상의와 하의 모두 저채도의 자켓과 바지를 디자인하였다. 채도는 동일하게 낮지만, 준보색의 대비로 조화와 변화를 동시에 피하고 있다. <그림 39>는 RP계열의 자켓과 밝은 R계열의 이너로 명도가 높은 PB계열의 쇼츠를 컬렉션에 선보였는데, 완전한 반대색(보색)이 아닌 준보색의 색채 대비 매칭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담한 컬러 조합으로 인해 남성복 색채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0>의 상의 자켓은 R계열의 고채도 색상을 사용해 제작하였고, 내부에 착용한 터틀넥은 Y계열인 저채도·고명도의 파스텔톤 색상으로 디자인하였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의인 블랙 팬츠와의 결합으로 명도 대비가 뚜렷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명쾌하고 확신에 찬 남성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그림 41>은 상의, 하의, 그리고 셔츠까지 RP계열의 인접색으로 고채도·고명도 색상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현대 남성복 디자인은 피코크 레볼루션 시기의 남성복과 비교하여 명도의 차이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인접색과 저채도의 색상을 일부 사용하여 더 넓은 색채 확장을 추구하고 있었다.

<표 8> 최근 5년간 남성복 색채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그림 41>
색채				
컬렉션	Gucci 17 f/w	Gucci 18 s/s	Balenciaga 18 f/w	Dolce&Gabbana 17 f/w
특성	준보색, 인접색의 다양한 색채 조화		확실한 명도 대비	형광 컬러를 통한 강조

3.2.3. 패턴(프린트)

1960년대 시기의 남성복 텍스타일 패턴은 아래 <그림 42>와 같이 히피와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동양풍의 페이즐리, 플라워, 오리엔탈, 사이키델릭 등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대중적으로 유행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패턴들은 최근 현대 남성 패션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이미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14) 이은영(1983).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129, p.135



<그림 42> 1960년대 남성복에 적용된 패턴

<그림 43>의 시계 패턴이 적용된 자켓과 <그림 44>의 추상적인 와펜 문양을 형상화한 패턴을 사용한 자켓은 1960년대 패턴과 컬러의 화려함은 유사하나, 실제 사물을 모티브로 하여 이를 디자인적으로 재구성한 점이 다르다. <그림 45>는 동양화를 모티브로 하여 동양적인 여성의 초상, 다양한 종류의 부채, 우산 등 인물, 사물의 이미지와 매화, 벚꽃, 나비 등 자연물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는 1960년대의 패턴과는 다른 현실의 사물 또는 추상적인 이미지,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차용하여 더 확대된 시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6>은 난색과 한색의 직사각형을 바둑판식으로 배열한 기하학 패턴을 사용한 자켓으로,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유행하여 “옵 룩(Op Look)”이라 불렀던 기하학적 착시미술인 옵아트를 도입한 패션이다. 현재 남성복에서는 또다시 1950-60년대의 옵아트 패션이 반복과 혼합 배열 등으로 재해석하고 디자인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9> 최근 5년간 남성복 패턴, 프린트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
패턴				
컬렉션	Dolce & Gabbana 18 S/S	Dolce & Gabbana 18 S/S	Dolce & Gabbana 18 S/S	Gucci 18 S/S
특성	이미지 확장, 표현의 극대화, 새로운 시각, 확대된 시각이미지			

3.2.4. 디테일 및 장식

디테일 및 장식은 아래 <그림 47>과 같이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 최근 5년간의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의복의 구성에서 섬세한 디테일에 중점을 둔 의상들이 상당수 나타남을 <표 10>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47> 1960년대 남성복에 적용된 디테일 및 장식

<그림 48>의 셔츠는 위의 <그림 47>의 피코크 레볼루션 시기의 셔츠와 같이 프릴 장식으로 디테일을 구성하고 허리선까지 연장하여 길게 늘어뜨렸다. 소매 커프스 또한 평범한 단면의 커프스 대신 손목에 떨어지는 프릴 커프스로 구성되어 제작하였다. <그림 49>는 라펠 카라와 윗 카라를 동양풍의 자수 디테일을 적용하여 제작한 6버튼 더블 브레스티드 피크드 카라 자켓이다. <그림 50>의 블루종은 몸판을 난색과 한색의 꽃과 동물 자수 패턴을 디테일로 차용하였으며, 셔츠 카라 또한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였다. <그림 51>의 코트는 몸판을 난색의 기하학 도형과 플라워 패턴을 적용하였고, 카라는 과거 피코크 레볼루션 시대 남성들의 외투에 많이 적용한 것과 같이 모피를 덧대어 제작하였다.

<표 10> 최근 5년간 남성복 디테일

	<그림 48>	<그림 49>	<그림 50>	<그림 51>
디테일				
컬렉션	Gucci 15 f/w	Gucci 17 f/w	Saint Laurent 16 f/w	Saint Laurent 16f/w
특성	개인적 취향	섬세한 디테일		다양한 형식 표현

최근 5년간 (2014년 - 2018년) 현대 남성복 패션디자인 요소 특징 분류

실루엣(형태)	컬러	패턴	디테일
- 인체라인 실루엣 - 개인 취향 강세 - 구성의 다양화	- 준보색, 인접색 - 확실한 명도대비 - 형광 컬러 강조	- 이미지 확장 - 표현의 극대화 - 새로운 시각	- 섬세한 디테일 - 개인적 취향 - 개별 생산의 확대

<그림 52> 최근 5년간 (2014년 - 2018년)

피코크 레볼루션 남성복 디자인 요소에 따른 특징 분류

위의 <그림 52>는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을 통한 최근 5년간의 (2014년 - 2018년) 현대 남성복 디

자인 요소를 살펴본 후, 각각의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사례 분석 결과, 최근 5년간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나는 남성복 디자인은 앞서 분석한 1960년대의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에서 나타나는 패션디자인의 4가지 디자인 요소와 표현 방식,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등의 외적인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와 2010년대는 각기 다른 급격한 시대 변화의 요인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인식변화와 디자인의 개념 및 의미 등에서 현격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각기 다른 시대의 피코크 레볼루션 남성복 디자인 요소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디자인 특성 및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4.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특성과 의미

아래 <그림 53>은 시대별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의 사회 · 문화적 배경에 따른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비교 · 정리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에 의한 디자인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떤 의미로 변화하고 재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단서가 된다. 아래의 <그림 53>에서 1960년대는 역동적 발전의

시대로 새로움, 다양성 추구, 유행의 형성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특히 청년문화는 아티스트들의 공연 및 대중문화 발달의 영향을 받았다.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반하여 저항과 반항을 앞세우고 새로운 형식과 개성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그들의 입장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패션 또한, 다양화와 새로움의 시도, 유행을 선도하는 대중적인 스타일들이 개성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의 발달 등,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시대와 비교하여 삶의 환경과 인식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정보의 공유를 통해 개별적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타일의 개인화, 개별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시대 현상의 뚜렷한 차이점 가운데 늘 잠재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자유를 느끼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움에 대한 추구하고 갈망이다. 1960년대는 특히 청년 정신이 특정 젊은 세대의 유행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패션산업은 기술혁신에 따른 도구 변화와 소비자 개별 중심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개성을 중시하고 개별성을 지향하는 개인 맞춤형 디자인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자가 추구하는 개성화, 개별화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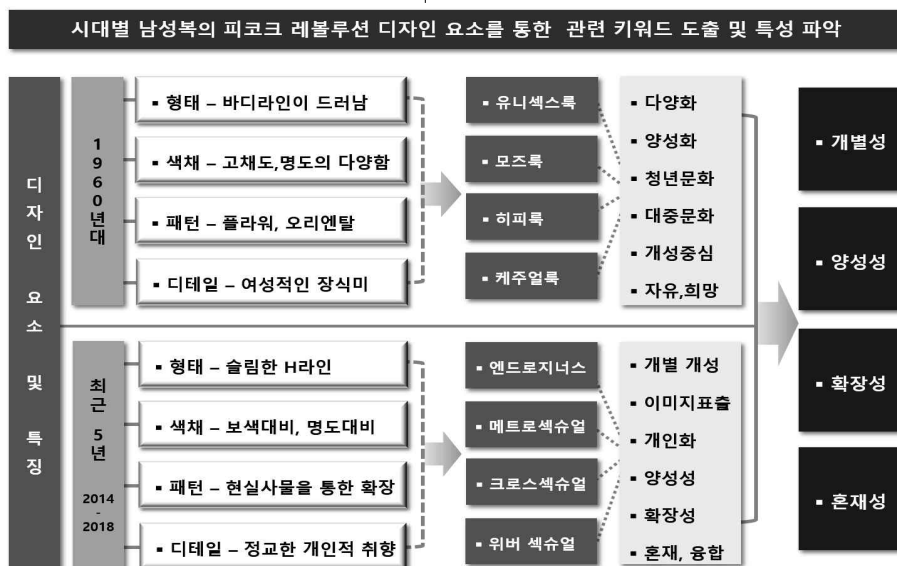


<그림 53> 시대별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의 사회 · 문화적 배경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상은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시대보다 더욱 확장된 표현 방식의 디자인 적용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 54>는 위와 같은 사회 · 문화적 배경에 따라 시대별 남성복에 나타나는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요소별 특징과 영향을 받은 패션 스타일 및 그에 따른 의미와 해석에 의해 도출된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다.

인의 특징은 첫째, 1960대와 같이 여유량을 최소화하여 슬림한 실루엣을 드러내는 디자인이 각 컬렉션 마다 빈도수 높게 나타났다. 둘째, 확연한 명도대비와 다양한 컬러의 변화 및 패턴들도 최근 5년간의 컬렉션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셋째, 현실의 사물 및 자연물과의 결합을 통한 패턴을 프린팅 기법으로 보여주며,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시기보다 더욱 확장된 이미지들이 보인다.



<그림 54> 시대별 남성복의 피코크 레볼루션 디자인 요소 분석을 통한 관련 키워드 도출 및 특성 파악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시기의 디자인 특징으로는 첫째, 여유량을 최소화한 구성을 통해 바다라인을 드러내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모즈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순색에 가까운 고채도, 고명도의 다양한 색채를 적용한 남성복이 유행하였으며, 자유를 희망하던 ‘히피’의 영향을 받아 ‘히피룩’ 등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동양적인 플라워, 오리엔탈 등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문양의 패턴들이 적용되어 당대의 한 흐름이었던 미래주의와 함께 ‘사이키델릭룩’ 형성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산업혁명 이전 일부 귀족층의 의상에만 적용되었던 장식적 요소들이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의 발전에 따라 기성복으로 생산되어 장식의 유행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60년대 젊은 세대들이 아티스트의 공연 의상에 영향을 받아, 패션스타일로 자유의 갈망을 표현하였다. 청년문화가 이끄는 새로움은 창조적인 스타일을 시도하였고, 대중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5년간의 남성복 디자인

넷째, 기성복의 장식적 요소들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개별적 맞춤 제작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남성복, 여성복의 뚜렷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 본연, 그리고 개인 자체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양상은 앤드로지너스, 메트로 섹슈얼 등의 스타일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도 언급되었던 바, 기술혁신에 따른 도구 변화와 소비자 개별 중심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패션산업은 유행, 개성 등을 넘어, 오로지 하나를 강조하는 개별성을 지향하는 개인 맞춤형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남성 패션은 각각의 ‘다른 시각’에서 순수한 아름다움, 즉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거쳐 피코크 레볼루션을 통한 현대 남성복에 나타나는 주요 특성은 개별성, 양성성, 확장성, 혼재성의 네 가지로 그 특성이 분류됨을 알 수 있었고, 다음은 각각의 의미를 논해보고자 한다.

<표 11> 피코크 레볼루션을 통한 현대 남성복의 특성 및 배경

특 성	시 대	배 경
개별성	peacock revolution	사회 현상에 의한 억압된 개성표출 / 자유희망
	현대	개인화 / 개별화 / 개성존중
양성성	peacock revolution	사회 변화에 따른 동일패션 (여성의 사회진출)
	현대	패션 본연의 가치 추구 남성성·여성성 차이 없음
확장성	peacock revolution	스타일의 확장
	현대	소재의 확장(융합) / 스타일의 확장
혼재성	peacock revolution	직업·지위·계층별 시대상을 대변하는 양식(스타일)의 혼재
	현대	지역, 국적, 위치에 상관없는 다양한 양식의 혼재

첫째, 개별성은 사회 현상에 의한 억압된 개성표출, 개인화, 개별화, 개성존중으로 정의된다. 1960년대의 개별성은 대중문화의 유행스타일을 따라 통일된 스타일에 대한 각자의 개성표출 및 자유를 희망하는 뜻이 었다. 이는 히피룩, 짐시룩, 보헤미안룩, 패션트룩 등을 통해 시대적 흐름과는 다른 개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현대의 개별성은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는 도구로 정의된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보여지기’ 보다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개인의 개성 표출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용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과 평범함을 추구하던 놉코어 패션의 시대가 가고 ‘괴짜, 별난, 기이한’을 뜻하는 ‘익센트릭’ (Eccentric) 패션이 화두에 오르면서 현대의 개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양성성은 1960년대 후반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남녀 간에 동일한 패션이 유행했으며, 1967년경 유니섹스룩이 선보여지면서 남녀가 똑같이 생긴 옷을 입는다는 개념으로서의 양성성을 보여준다. 현대에는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 ‘젠더리스’ (Genderless)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젠더리스란 ‘성의 구별이 없는’, ‘중성적인’ 이라는 뜻¹⁵⁾ 을 가진 용어로 남성, 여성이라는 말로 역할과 책임, 행동을 규제하지 않고 젠더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있다. 이는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 본연의 개성을 중시하는 양성성으로 의미가 파악된다. 여성이 여성복

에서 해방되어 남자와 같은 옷을 입게 됐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던 유니섹스는 곧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줄여 인간이 평등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젠더리스는 양성성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다. 디자이너 J.W. 앤더슨은 ‘Shared Wardrobe’ 라는 개념으로 젠더리스를 설명한다.¹⁶⁾ 이는 성별 구분이 없던 유니섹스와 달리 여자 옷, 남자 옷이 따로 디자인되지만, 각자 다른 성에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스타일을 말한다. 누구라도 취향에 맞으면 입을 수 있는 옷이자 유니섹스라는 개념을 위해 따로 디자인하지 않는 옷이 젠더리스 스타일이다. 다음은 방식의 전환이다.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는 것을 유니섹스라고 한다면 젠더리스는 한층 다양한 방식을 추구한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기도 하고 여자 옷처럼 디자인된 남자 옷을 입기도 한다. 전통적인 성별의 강박에서 벗어난 스타일이라면 모두 젠더리스 룩이 되는 것이다.”¹⁷⁾ 이를 통해 현대 패션은 각각의 개성표출을 위한 수단으로써 패션디자인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모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확장성은 현대 남성 패션디자인의 디자인, 소재, 스타일 등이 기존에 통용되고 인식되어오던 것의 확장을 의미한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터넷의 보급, 다양한 선진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가치관의 변화, 문화의 다원화와 생활수준 향상 등의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 가치 추구영역의 다양화 등을 원하게 되었다.¹⁸⁾ 이는 삶의 질적인 면을 중시하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사회적 성공보다는 개인의 안녕을 위한 자기애가 강함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고, 스스로가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하여 브랜딩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재, 실루엣, 색채 등 디자인 측면에서 피코크 레볼루션 시대와 비교했을 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스타일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혼재성은 직업, 지위, 시간, 국적에 상관없는 패션의 자유화, 다양한 양식의 혼합으로 정의

15)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주)Blue Fish

16) 젠더리스 : www.fashionchannel.co.kr 검색일 : 2018.11.26

17) 젠더리스 : www.fashionchannel.co.kr 검색일 : 2018.11.26

18) 20, 30대 남성 라이프 스타일 변화 (2008. 9. 26). 네이버 정보, 자료검색일 2018. 9. 26 <http://naver.com>

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별 구분과 남성, 여성의 특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등의 억압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대중매체의 미발달로 인해 개개인의 의사소통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지역적, 지리적, 시간적으로 제한되었던 정보 공유 및 소통이 해방되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이너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디자이너가 되어 각자의 생각들을 소통하며 공유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역할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다양한 혼재의 열린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패션디자인의 창조적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개성과 개별성을 추구하는 흐름의 현대 남성복 디자인은 1960년대 피코크 레볼루션 시대의 남성복과 디자인 구성 요소에서 상당 부분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각각 변화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토대로 1960년대 남성복과 최근 5년간의 남성복을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고 그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는 남성복의 시대적 문화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역사 변화에 따른 남성복의 개념과 새로운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개념 정립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피코크 레볼루션은 1960년대 격변의 시대상으로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그로 인해 패션의 다양화와 새로운 시도, 유행을 형성하는 대중적이고 개성적인 스타일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피코크 레볼루션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1960년대 남성복을 디자인 구성 요소인 형태, 실루엣, 색채, 패턴, 장식 및 디테일로 정리하여 각 특징들을

정리하고 키워드로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최근 5년간의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나는 디자인 특징은 앞서 연구한 1960년대의 피코크 레볼루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상당

부분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두 시대의 디자인 비교, 분석 결과 외형적인 디자인 이미지는 맥을 같이하지만, 환경의 차이와 디자인 의미 해석의 시각은 현저한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년대는 디자인의 내적의미로 청년문화를 통한 새로움의 추구하고 대중문화를 통한 유행 선도 등을 들 수 있다면, 최근 현대 남성복은 개성을 넘어 각각의 개인화, 개별성이 중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됨을 시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복 디자인은 한 시대, 또는 세대를 거쳐 오면서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였으며, 해당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이미지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안의 개념과 그로 인해 각 시대별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남성복 디자인의 다양한 방향성과 범위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 현상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디자인 시도와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남성복, 여성복이라는 각각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 창의적 주제로서 패션디자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정기간행물(Periodicals)

- 김윤경, 이경희(2002).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2(4), 51-63 (13 pages).
- 김현정, 임은혁(2015).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주디스 버틀러의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Vol. 65; no. 3; pp. 47 - 61.
- 문지영(2009). 「1920년대 프랑스 ‘남장여자(Garconnes)’의 이미지와 표상」, *프랑스사 연구*, no. 20; pp. 131 - 152.
- 신주영(2008).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 *한국복식학회*, Vol. 58; no. 3; pp. 131 - 148.
- 이민정, 이인성(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살롱 문화 시대의 패션스타일에 대한 분석」, *한국복식학회*, Vol. 62; no. 1; pp. 14 - 28.
- 장성은(2007). 「벨플린의 양식사적 관점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의 양식 비교」, *한국복식학회*

Vol.57; no. 7; pp. 15 - 29.

- 정화연(2007).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남성복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이상디자인학회지*, Vol. 9; no. 2; pp. 31 - 48.
- 정현숙(2015). 「박길순, 르네상스 시대 남성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Vol. 24; no. 4; pp. 531 - 539.
- 조경숙(2016). 「프랑스 패션 파워 형성의 배경이 된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복식학회지*, Vol. 66; no. 2; pp. 32 - 44.
- 정현숙(2017). 「로코코 시대 남성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Vol. 26; no. 4; pp. 341 - 351.
- 한순영, 김정희(2012).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 성에 관한 디자인연구」, *한국니트디자인학회지*, Vol. 10; no. 3; pp. 11 - 21.

2. 서적(Book)

- 고애란.(2008).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주)교문사.
- 김민자 외 5명.(2010). 『서양패션멀티콘텐츠』. (주)교문사.
- 김영옥 외 2명.(2009). 『서양 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도서출판 경춘사.
- 이지효.(2016). 『대담한 디지털 시대』. (주)알에이치코리아.
-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주)Blue Fish.
- 정홍숙.(1981). 『서양복식문화사』. (주)교문사.
- 최경원.(2007). 『붉은색의 베르사체』. (주)도서출판 길벗.
- 최경원.(2006). 『Great Designer 10』. (주)도서출판 길벗.
- 마틴 린드스트롬.(2017). 『스몰데이터』. 로드북.
- Melissa Leventon.(2008). 『Costume Worldwide』. The IVY Press.
- N.J. Stevenson.(2014). 『The Chronology of Fashion』. The IVY Press.

3. 웹 검색

- <http://google.com>
- <http://www.vogue.co.kr/>
- <https://slate.com/human-interest/2010/11/how-to-become-a-fashion-eccentric.html>
- <https://www.nytimes.com/2013/10/24/t-magazine/the-demise-of-the-fashion-eccentric.html>
- <https://www.zazzle.com/eccentric+clothing>
- <http://flavorwire.com/366089/the-fashion-industrys->

10-most-eccentric-designers-2

- http://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28&number=24704

